

# ACC 어린이문화원 재개관에 부쳐

기고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얼마 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했다. 단순히 시설을 새롭게 단장하는 차원이 아니다. 첨단 기술과 문화 예술을 융합해 어린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공간으로 탈바꿈이다. 어린이문화원은 처음부터 아시아의 어린이들이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설계된 공간이다. 그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창조원, 문화정보원, 예술극장, 민주평화교류원 등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아시아 문화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세계와 소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더해 어린이문화원은 이 모든 것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통합적으로 구현하려는 의도를 담아냈다. 이번 재개관을 통해 어린이문화원은 그 꿈을 조금씩 현실화하려는 행보에 나섰다.

재개관한 어린이문화원은 AI와 메타버스, 실감형 콘텐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와글와글 도서관'은 책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독창적인 공간이다.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체험이 가능하다. 투명 OLED 미디어월과 같은 기술을 통해 어린이들은 놀이로써 자연스럽게 예술을 경험하며, 창의력 발휘가 가능해진다.

메타버스 어린이체험관은 가상현실 속에서 아시아 문명을 탐험할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이다. 어린이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이집트 문명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계단식 논, 중앙아시아의 이동식 집 유르트 등을 탐험하며 시공간을 초월한 모험을 즐길 수 있다. 이러한 체험은 즐거움을 넘어 아시아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학습 효과에 이르게 한다.

어린이문화원은 공연과 체험을 통해 어린이의 상상력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어린이극장에서 열린 유아 예술공연 '그릇을 만들어 주세요'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공연에서 '그릇'은 그냥 물건이 아니다.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감정을 담아내는 매개체다. 어린이들은 그릇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예술에 몰입했고, 어른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 아이들의 마음은 아직 모양도 크기도 정해지지 않은 가능성에 열린 그릇과 같다. 공연에서 어린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답이 없는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마음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이번 재개관은 어린이문화원이 아시아의 어린이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앞으로 어린이문화원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다국어 지원 스마트 안내 시스템과 지역 특화 체험 공간의 추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사원이나 일본의 전통 목조 주택

과 같은 테마 공간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 외국인 방문객들에게도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글로벌파트너십을 강화해 아시아 각국의 어린이문화센터와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전문 가이드를 배치해 다국적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어린이문화원의 콘텐츠를 VR로 제공하거나, 메타버스를 통해 온라인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측면에서는 아시아 문화 축제나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 각국의 전통 놀이를 AR로 구현하거나, 그림책을 통해 전통 문화를 배우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어린이문화원은 놀이 공간을 뛰어넘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재개관을 계기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어린이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어린이들이 마음의 그릇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를 배우며, 미래를 꿈꾸는 창작 놀이터로 성장해가길 희망한다.

궁극적으로 어린이문화원은 어린이들의 창작놀이터인 동시에 아시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허브 역할까지 해야 한다. 더불어 아시아의 어린이들이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기고

김선우 (사)좋은이웃 증양자문위원장



# 대한민국 1%에게 관심을

지난 12월 18일에 '사단법인 좋은이웃 증양회'의 임직원들 및 한전MCS 본사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따뜻한 온도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한전 MCS에서 사단법인 좋은이웃 '따뜻한 온도 연탄 나눔'에 400만원을 기부하고, 연탄이 절실하게 필요한 소외계층 가정에게 연탄배달을 하는 행사다.

'따뜻한 온도 연탄 나눔' 행사는 연탄 2만장 분량의 기부금을 모금해 전국 50개 가정에 400장씩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으로, 이날로 30번째다. 새해 설 연휴 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혹자는 이렇지도 모른다. "연탄? 아직도 연탄을 댄다고?" 말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연탄을 '옛날식 연탄구이' 정도로나 떠올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연탄이 없으면 이 추운 겨울을 나지 못하는 가구가 전국에 7만 가구 정도나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565만여 가구이니까 이 중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약 1.2% 정도이다.

연탄을 필요로 하는 가구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복지재단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중에 44.6%가 소외가구이고 32.8%가 수급자 가구이며 8.9%가 차상위가구라고 한다. 이들을 합치면 전국에서 연탄 사용 가구 중에 86.3%가 우리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어려운 가구인 셈이다. 그 외에 연탄을 필요로 하는 약 1만여 가구(비율로 보면 13.9%)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연탄 가구가 2020년대에 들어서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원인으로는 난방비 상승, 고령층 증가, 공공요금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추정된다. 특히 늘어가 는 연탄가구는 노령화 지수가 높고 경제

적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연탄가구는 주로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이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외곽지역, 곧 도시 인프라가 없는 곳에 연탄가구가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탄가구 상당수가 비닐하우스나 오래된 집 등을 이용해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얘기가.

2024년 겨울은 무능하고 무지한 대통령으로 인해 온통 시끄럽고 어지럽다. 국민 대부분이 그 소식에 귀를 기울이다보니 연말 경기가 좋지 않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사회가 돌봐야 하고 관심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는 마치 특별한 상류층을 얘기하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관심이 정말로 많이 필요한 계층을 의미한다. 바로 7만이 넘는 연탄가구다. 연탄가구는 고령층이면서 동시에 월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다. 2024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이다.

노인복지, 농촌복지 등의 실현은 작은 것에서부터 가능하다. 1개에 1000원 정도 하는 연탄 하나조차도 구매하는 것을 주저하고, 구매를 하더라도 집으로 가져오는 것이 힘들고 버거운 우리 이웃에게 작은 관심부터 가져주는 것이다.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은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우리는 국회와 사법 당국이 이를 잘 시행하는 지 감시를 해야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추운 겨울을 너무나도 버거워하는 이웃에게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점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이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일(현지시각)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상공에 북극광(오로라)이 펼쳐지고 있다. AP/뉴시스



**@ji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